

石窟庵本尊

阿彌陀如來坐像小考

— 신라 東海口遺蹟과 관련하여 —

黃 壽 永

신라의 東岳인 吐含山頂 가까이 자리잡은 우리의 石窟庵은 그사이 조각과 건축의 兩面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같은 造形美術뿐 아니라 石窟建立에 이르는 歷史의 背景과 信仰의 內實 그리고 이에 관여한 人物들에 대하여서는 더욱 깊이 생각하여 볼 만하다.

먼저 석굴에 관한 가장 오랜 文獻인 三國遺事 卷五 「大城孝二世父母」條에는 佛國寺와 더불어 이 石窟庵(石佛寺)이 신라 金大城이 現生과 前世二親①을 위한 建立이라 하였다. 그러나 과연 이들 신라의 兩大寺院이 오직 一權臣의 힘으로 그의 二世父母만을 위하여 기록될 수 있었던 사사로운 願堂일까. 만일 그에 그치지 않았다면 이같은 「古鄉傳」뒤에는 佛國·石佛 兩寺造營의 보다 크고 重要한 사실이 가려져 온 것이나 아닐까.

二、

三國遺事가 전한 「寺中記」에 따르면 이중 佛國寺에 대하여는 신라 景德王十年(七五一)에 大相金大城에 의하여 始創되었다고 하였는데 그發願의 참된 人物은 당대의 國王인 景德王 그 자신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金大城(七〇〇~七七四A、D)은 당시 오늘날의 國務總理의 벼슬인

中侍를 지냈던 國王側近의 金大正②으로 추정되었다. 그는 景德王九年에 벼슬에서 물러나자 翌年부터 二十餘年(景德王十年~惠恭王十年、七五一~七七四A、D) 王命을 받들어 이 國家大役을 담당하였다고 추정된다. 이와같은 國家내지 國王에 의한 營造事業에서의 重臣의 役割을 전하는 實例로서는 皇龍寺木塔이나 또는 皇福寺石塔③의 건립을 전하는 당시의 金石文을 들어서 말할수도 있다. 그러므로 佛國·石佛 兩寺의 建立은 또한 긴 세월에 나라와 君臣의 힘으로 진행되었으며 金大城이 마침내 七五세에 死亡함에 「國家乃畢成之④」하였다고 기록된 까닭이기도 하다. 만일 이들 兩寺가 단순한 一重臣의 願堂이었다면 國家가 畢成할 까닭은 결코 없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佛國·石佛 兩寺는 八世紀 中葉에 기록된 신라 金氏王家의 一大願利로서 金大城은 이공사의 都監의 重任을 다하였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山下의 佛國寺가 現生父母를 위한 經營이었다면 山上의 石佛寺는 이미 世上을 떠난 金氏王族으로서 東海에 藏骨 또는 散骨된 신라 歷代의 大王을 위시하여 많은 金氏王族을 위한 願堂이었다고 생각한다.

三、

위와같은 새로운 觀點에서 보면 우리 석굴로 하여금 一定한 方向을 지니도록한 곳에서 먼저 우리 석굴의 가장 큰 眼目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왔다⑤. 그런데 이석굴은 東東南으로 窟門을 열어서 東海를 대하였는데 바로 이석굴과 大佛이 똑바로 향한 그곳 東海岸에는 신라에서 가장 신성한 장소가 자리잡고 있다. 그곳이 곧 필자가 일찍부터 불러온 「東海口의 遺蹟」이다. 그곳에는 三國통일의 英主이시며 死後 護國大龍이 되사 佛法을 받들고 나라의 守護를 誓願하신 文武大王의 海中陵寢⑥이 먼저 자리잡았고 그를 중심으로 景德大王의 바로 先王인 孝成大王⑦을 비롯하여 많은 金氏王族⑧의 散骨處가 추정된다. 바꾸어 말하면 석굴암의 標의는 바로 신라 金氏王家의 一大共同墓域을 이루고 왔던 東海



圖 1. 石窟庵壽光殿扁額

口의 遺蹟인 것이다. 다행하게도 三國史記가 기록하여준 「東海口」란 吐
 舍山の 溪水가 모여서 大鍾川을 이루고 마침내 東海에 流入되는 바로
 그 海陸一圓(오늘의 慶北 月城郡 陽北面 龍堂里 奉吉里 臺本里 등)을 가
 르켰으며 그곳 신라의 要地에는 大王陵 이외에도 鎮護國家의 大刹인 鎮
 國寺(9) 위에 感恩寺라 改稱)와 文武大王陵을 위하여 쌓은 利見臺 등이 集
 中하고 있다. 이곳이야말로 신라 으뜸의 聖地이기 에 신라 造形美術의 頂
 金인 景德大王은 신라의 最盛期인 그의 治世를 배경으로 一代一次의 大
 伽藍을 吐舍山 兩面에 創立함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들 兩寺庵이 오늘에 전래하여 우리의 至寶라고 일컫는 까닭은 또한
 그만큼 깊은 創立因緣과 오랜 歲月에 걸친 守護의 정성이 때문
 이다.

四、

다음에 이 石窟의 主尊인 如來坐像에 대하여 말하여야겠다. 기왕에는
 오직 日人學者의 發說(10)을 따라서 釋迦如來坐像으로 말하여왔으며 또
 그것이 禮拜하여왔다. 日人學者는 그 右手印이 觸地降魔印이기 에 이같이
 숙단한 것이나 그러나 左手印은 신라統一期에 들면서 특히 阿彌陀如來坐
 像을 으뜸으로 流行된 手印이며 釋迦如來像만에 限定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또 우리 石窟에는 本尊을 釋迦라고 전하는 기록이나 또는 口傳
 은 하나도 찾을 수가 없다. 도리어 우리는 그와는 다르게 이 石窟大佛로
 불러 왔으며 예배하여 왔던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금세
 기 초 이래 오직 外人의 소홀한 발설을 따라서 그 사이 우리의 國家大寶
 를 잘못 불러왔던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 석굴암 현장은 二十세기 이
 전 日人이 상륙하기 이전에 마련된 두가지 重要資料가 오늘에 전래하
 고 있다. 그 하나는 「壽光殿(11)」이란 큰 扁額이며 다른 하나는 우리 석굴
 의 韓末의 修理를 기록한 懸板인 「吐舍山石窟重修上棟文(12)」이다. 먼저
 오늘에 전하는 이곳 오직 하나의 古建物에 걸려있는 「壽光殿」이란 바로
 阿彌陀佛을 가르키는 無量壽佛 또는 無量光佛에서 壽와 光의 二字를 따

서 이름한 것이다. (아마도 이懸板은 원래石窟前室法堂에 걸려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른 또하나인 上棟文의 첫머리에는 이석굴을 「彌陀窟」이라 하였는데 이같은 두가지 古記錄은 모두 이石窟의 主佛이 西方極樂淨土의 教主인 阿彌陀佛이란 사실을 오늘날의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하여준 것이다. 이곳 本尊에 대하여서는 이같은 文字 이외에도 먼저 이곳 本尊의 양식에서 말할 수 있겠는데 그를 위하여서는 먼저 七세기 後半에 文武大王과 義相大師에 의하여 창건된 太白山 浮石寺 無量壽殿의 國寶 阿彌陀如來坐像¹³ 또는 一九六二年 필자가 새로 조사한 八公山 軍威三尊石窟의 國寶 阿彌陀如來¹⁴坐像과의 比較와 編年이 있어야겠다. 그 까닭은 浮石寺와 石窟庵 또는 軍威石窟의 本尊이 모두 그양식 특히 手印이 전혀 같을뿐 아니라 前二者의 方向이 또한 모두 東東南하고 있는 사실 그리고 七, 八세기에 걸쳐서 中國을 비롯하여 신라에서 가장 유행하던 阿彌陀如來坐像의 信仰과 그造像의 樣式系譜 그리고 上記한바와 같이 前世父母를 위한 創建事實등에서 吐含山 石窟本尊 大佛의 名號가 스스로 풀이될 수가 있었다.

五、

이곳 兩寺의 本尊이 모두 西方極樂淨土의 教主인 無量壽佛 곧 阿彌陀佛이기에 우리는 오늘 이곳 兩寺庵에 이르러 모두 西方을 향하여 禮佛 도록 배치되어 있기도 하다. 이것이 곧 「佛說觀無量壽佛經」에 「稽首瞻禮即西方」이라는 까닭이기도 하다.

이와같이 필자 자신은 그사이 우리石窟과의 적지않은 因緣에도 불구하고 최근년에 이르러서야 그 本尊을 無量壽佛 곧 阿彌陀佛로 추정하게 되었는데 이같은 고찰은 나아가 石窟周壁像에서 本尊 다음으로 重要な 자리를 차지하는 本尊 바로 後方의 十一面觀世音菩薩立像을 指目함으로써 우리石窟이 신라 八세기에 極盛하던 淨土信仰에 따라서 阿彌陀佛과 그 脇侍인 觀世音菩薩로서 石窟像 배치의 主軸을 삼았던 사실을 알 수 있었다. (一九七八, 二, 一)

(註)

- ① 三國遺事 卷五、大城孝二世父母條(古鄉傳) 乃爲現生二親創佛國寺。爲前世爺孃創石佛寺。請神琳表訓二聖師各住焉。
- ② 李基白·新羅執事部の成立(震檀學報) 二五、二七號 一九六四年)
- ③ 拙編·韓國金石遺文 收錄 一九七五年刊 新羅皇福寺石塔金銅舍利函銘 新羅皇龍寺九層木塔刹柱本記
- ④ 三國遺事 卷五 大城孝二世父母條 寺中有記云景德王代大相大城以天寶十年辛卯始創佛國寺。歷惠恭世以大歷九年甲寅十二月二日大城卒。國家乃畢成之。
- ⑤ 朝鮮總督府·佛國寺와 石窟庵 石窟의 構造其一에 「石窟의 方位는 地勢에 의하여 만들어진 結果에 不過하다」고 하였다.
- ⑥ 三國史記 卷七 文武王 二二年條 群臣以遺言葬東海口大石上。俗傳王化爲龍仍指其石爲大王石。
- 三國遺事 王曆條
- 第三十文武王……陵在感恩寺東海中
- 同上 卷一 文虎王法敏
- 遺詔葬於東海中大巖上
- 同 上卷二 萬波息箇條
- 遺詔之藏骨處名大王岩
- ⑦ 三國史記 卷九 孝成王六年五月條 王薨諡曰孝成。以遺命薨柩於法流寺南。散骨東海。
- ⑧ 朝鮮金石總覽 上卷에 수록되어 있는 甘山寺彌勒菩薩造像記와 同寺阿彌陀如來造像記 그리고 三國遺事 卷三 南月山條에는 모두 「古人成之東海攸反邊散也」라 보인다.
- ⑨ 感恩寺의 原名이 鎮國寺라고 「攸禁錄」(寫本)에 보이는데 三國遺事 卷二 萬波息箇條에 「寺中記云文武王欲鎮倭兵。故始創此寺」라고 보이는 記事에서 이 鎮國寺란 寺名의 기록은 正當하다고 생각된다.
- ⑩ 日本人이 石窟本尊을 釋迦라고 부른 最初의 記錄은 一九二二年六月二三日付 復命書(總督府技手木子智隆氏)에서 볼 수 있으며 一九一七年刊行된 朝鮮古蹟圖譜 第五冊에서 「石窟本尊釋迦如來像」이라 하였다.
- ⑪ 이 「壽光殿」의 末尾에는 「壬午仲秋」 白岳樵夫申命熙라고 보인다. 그리고 壬午는 아마도 朝鮮朝末에서 肅宗二八年(七〇二) 英祖三八年(七六六) 純祖三二年(八二二) 高宗一九年(八八二) 中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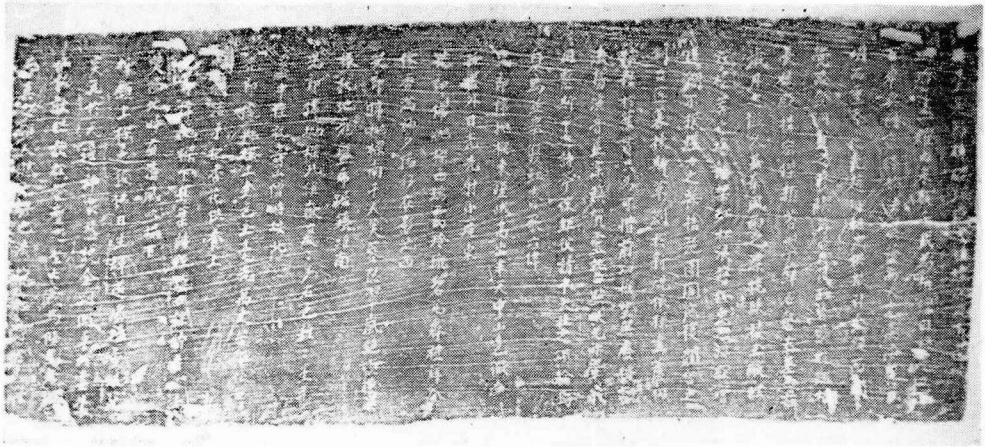


圖 2. 口土舍山石窟重修上棟文

추정된다. 그런데 佛國寺古今歷代記는 肅宗二十九年(一七〇三)의重修를 傳하며 石窟上棟文(註上)은 高宗二十八年 辛卯(一八九一)의 사실이다.

12 이懸板殘片은 현재 東國大博物館에 珍藏되어 있는데 그全文은 「石窟庵修理工事報告書」(文化財管理局刊一九六七年)에 수록되었으며 이보다 앞서서 小野玄妙氏의 「極東의 三大藝術」(吐含山の 釋迦)(一九二四年日本東京刊)에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小野氏는 이책에서 「此像近頃에는 阿彌陀의 像으로 信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上棟文再錄)

13 拙稿…浮石寺塑造阿彌陀如來像 (佛敎美術) 三輯, 東國大博物館(一九七七年刊) 卷자는 이곳 浮石寺本尊의 樣式과 그 配置方 案이 創建以來의 것을 전하고 있다고 추정하여 왔다.

14 拙稿…軍威三尊石窟(美術資料)六輯一九六二年, 國立博物館刊 拙著「韓國佛像의 研究」三和出版社一九七三年刊에 收錄)

〔參照〕

拙稿…石窟庵斗阿彌陀佛(佛光)一九七七年一月號。「佛敎와 美術」悅話堂美術文庫에 收錄)

〔稅 錄〕

吐含山石窟重修上棟文

聞夫、彌陀窟金剛臺、俱是重新之淨土、兜率宮銀色界、孰非改觀之祇園、只取苟完、可期幸補、粵若佛國之石窟、實維羅代之伽藍、良工雕琢、既如水晶之城、寶相端嚴、儼然闔幅之域、肇從甚深之筑教、克親磅磅之梵宮、擬報兩世劬勞之恩、賢宰殫力、普開千佛莊嚴之海、神僧協謀大千世界、瑚峰建標第一山川、蓮台七寶香花、光映脫解神殿、八法功水沒動文武王巖、玉女奉供於九天、金僊現聖於三界樓臺是飾、硨磲琉璃之炫煌、砌所有榮、玻璃瑪瑙之照耀、由來數千載、爲梅檀因緣、屹立數百年、與國家終始、法雲蔭而火室晨冷、慧日明而重昏夜光、趙巡相之供糧、引金繩而開覺路、僉洞員之修稷、浮寶筏而替慈航、短楫長楸、殿構宏傑、頰苔翠蘚、石勢參差、今茲歲月之滋久、其奈風雨之漂擲、珠樓玉殿、埋沒榛莽之場、鶴架虹杠、浪籍狐兔之跡、經營迂濶、不揆螳力之懸、捨施團圓、庶復龍宮之制、召匠募棟、斯草創於新規、依採畫蘆、仍拮据於舊貫、只爲可借前功、惟望無廢後觀、法鳥演音、益深燕賀、靈鷲點頭、允叶羣飛、用繫斯千之詩、斧彼鉅彼、請中大壯之頌、輪焉奐焉、並舉雙虹齊歌六偉

兒郎偉拋樑東、嵯峨高出半天中、山色微分孤塔外、日光先射小庵東
兒郎偉拋樑西、瑞靄玲瓏碧瓦齊、禮拜金僊香滿袖、夕陽移在影池西
兒郎偉拋樑南、千人芙蓉隱翠嵐、絕頂連天根托地、龍盤虎踞鎮維南
兒郎偉拋樑北、維嶽巖巖最多石色、離離星斗巖中住、祝壽山僧時拱北
兒郎偉拋樑上、金色玉毫光萬丈、昔顏依舊雲根活、手把香花供養上
兒郎偉拋樑下、貝葉轉經鎮日課、請看法焚修地、時有清風吹榻下
抑願上樑之後、佛日生輝、道場增重、琅苑突元於天邊、神象慈護、金剛倒卓於雲外、仙侶獻供、談經證智之聖士、藏焉修焉、考槃尋真之碩人、賦也興也、法輪常轉、香海永清、
聖上即祚二十八年辛卯四月佛誕日、朝鮮國嶺左慶州府東海上、九芝山居士、孫永耆述

(東國大學校博物館長)